

나는 친정어머니께 어리광 부리듯 부처님 옷자락에 매달려 간절히 발원했다. '부처님, 옛날 어머니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 가정의 바랍막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신심을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화·목·일요일. 아침 8시40분 집을 나선다. 현관문을 열면 절망은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멀리 바다를 보이는 동봉산 봉우리에는 희망이 떠오른다.

속살을 드러낸 산속으로 들어서면 다람쥐·청설보·까치·박새·까마귀가 저희들만의 대화로 한 세상을 열고 있다. 옛들은 나 또한 절로 환희심이 차오른다. 천지에 불법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랴. 그야말로 일미진중합시방 일체진중역여시(一微塵中十方一切塵中亦如是)임을 실감한다.

가뻛던 숨결을 천축사 들계단에서 잠시 고르고 사시예불 시간에 달게 걸음을 서두른다. 염송·묵언·묵상... 저절로 기도의 기운이 온 몸에 스며든다. 얼음관에 미끄러지고, 더운 숨을 내쉬고, 등덜미에 땀이 차오를 때마다, '아! 내 몸이 지금의 내 삶과 같구나. 그래도 고개를 넘으면 부처님이 계시니까 해결해 주실거야.'

얼음관을 뒀고 일어서며 스스로 최면을 걸었다. 아울러 나아해지는 자신을 다잡기 위하여 주변의 친지들에게 백일기도 중이라는 이야기를 흘렸다. 한결같이 나의 신행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건강을 염려해 주었다. 나는 자신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공증을 세운 셈이었다.

하루하루 생활은 활력과 희망에 넘치고 절로 경전의 경구를 흥얼거렸다. 무기력한 남편, 눈치만 보는 큰애, 의기소침한 시어른. 모두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신념까지 생겼다.

그러나 한껏 부풀었던 풍선이 순간 터지듯 보통정도가 지나자 기도에 대한 회의가 밀어닥쳤다. 흔히 말하는 마(魔)가 건드리는 것이었

을까? 나는 서러웠다. 내가 이 한 겨울 눈발에 몸을 던져 기도를 하지만, 결국 지금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상황을 마음 편하게 인정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일까? 변화없는 현실에 절망할때 스님은 또 나를 다달하실 게 분명하다.

"보살님, 신심이 부족해서 부처님 가피를 못 입은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런 모범답안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얼마나 부질없는 노릇인가!

나는 눈물 범벅이 되어 따지듯 스님께 대들었다. 스님은 단호하게 나를 꾸짖었다.

"보살님, 지금 기도 다 끝내고 하는 소리요? 매일 <보문품경>은 왜 독송하는거요? 보살님같은 사람 때문에 경전에 시고수상념(是故須常念) 하되 염념물생의(念念勿生疑)라는 구절이 있지 않소. 조금도 의심을 내지 마소. 끝까지 기도하고 나서 나에게 말하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보다는 주변을 위한 기도를 드리소. 기차는 혼자서 생각해서 만든 차가 아니라 여러사람을 태우기 위하여 만든 차이잖소."

작은 내 그릇에 스님은 따가운 질책을 쏟아부었다.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에 며칠간 스님

오르듯 봉긋하다.

회향을 보름 남짓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이 또 나를 조여왔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하나. 또 어디에다 마음을 붙여야 하나' 초조했다.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나 얼굴빛은 맑아졌다고 주변에서 입을 모았다.

그러나 스님은 나의 의중을 알아차렸는지 하루는 차나 한잔 하자면서 나를 잡았다. 부드러운 미소를 띤 스님은 나의 기도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속스러운 마음과 함께 코끝이 시큰했다. 얼른 찻잔을 드는데 눈물이 먼저 손등에 떨어졌다.

스님은 회향의 의미를 간곡히 설하셨다. 마음은 입제 때와 같은 각오를 지니고, 모든 공덕은 부처님께 돌려야 하며, 회향 3일 전부터는 매일 천백씩 절을 하라고 하셨다.

시종여일(始終如一)이라는 글귀를 떠올리며 하산을 하는데 발걸음이 한층 가벼웠다.

(3)

97년 3월17일. 그날은 백일관음기도 회향일 이었고, 내 생일이기도 했다. 굳이 일정을 그릴

"조금도 의심 말고 주변 위해 기도하십시오"
작은 내 그릇에 스님은 따가운 질책을...

을 대할 수가 없었다. 허나,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의심없는 신심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하루를 마감하며 드리는 기도는 마음을 한없이 평온하게 했다.

겨울의 꼬리 끝에 임흥이 고개를 내민다. 마른 나무가지는 소리없이 물을 울리기에 분주하고 양지밖에 서있는 진달래 꽃봉오리는 젖살

게 잡지 않았는데 묘하게 날짜가 일치하니 스님은 좋은 징조라며 나를 마음 편하게 했다.

처음으로 많은 절을 한지라 몸은 젖은 숲 같았지만 마음은 새털 같이 가벼웠다. 남편과 큰애도 정성스레 지고 온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함께 회향을 했다.

무엇보다도 큰 기쁨은 내가 해내었다는 자신감이었고, 또한 어머니의 신심이 내 심전(心田)에 발아하고 있다는 환희심이었다.

법당을 나서며 남편은 아무 말없이 내 두손을 꼭 잡아주었다. 마추한 우리의 눈에는 물기가 그득했다.

"기도의 끝은 있다"던 친정어머니의 말씀은 진리였다.

지난 5월1일. 남편은 건강한 생활인의 모습으로 첫 출근을 했다. 안정된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니 호랑이가 날개를 얻은 셈이다. 큰애 또한 물 만난 고기가 되었다. 10월 초, 체육특기생으로 원하는 고등학교에 이미 배정을 받았고, 지금은 탄탄대로를 위하여 더욱 정진하고 있다. 단지 시어른만이 그대로일 뿐이지만, 팔순을 바라보는 노인에게 무슨 욕심을 가지랴. 그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만이라도 내 복이 아닌가.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어찌 감사의 기도를 안 드릴 수 있으랴. 오늘 백일관음기도를 다시 입재하며 간절하게 발원했다.

"해마다 입재 때 같은 마음으로 겨울기도를 행하게 해주십시오."

(대상 이태순씨 신행담은 158호부터 연재)




당선소감



이매림씨

"터널 나와 새 세상 보는 느낌"



이태순씨

"참회·포교로 남은 인생 회향"

수상 소식을 듣고 얼른 배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동봉산 관음암 봉우리에서 친정어머니가 먼저 웃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것 바래이(그것 바래). 기도의 끝은 있지"라며 어머니가 더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이지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한없이 기쁘고 환율이 부끄럽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내내 행복했고, 그 사람들에게 적대하던 내 삶의 모습을 들추어낸 것이 실로 부끄럽습니다.

산다는 것은 남에게 거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겁어인(駭於人)의 경구를 인용하면서 겨우 발걸음을 떼는 제 글을 세상에 내어 놓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평

올해 신행수기 응모 작품들은 예년에 비해 소재 등 내용면에서 다양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됐다.

신행수기에 주된 흐름은 수행·정진·기도와 가피를 통한 신앙적 확신이다. 이 과정에서 자칫 정법신행에 소홀하기 쉽다. 그저 기도의 효험이 나타나는 것만을 목적삼을 때 불법에 다가서는 것이 간과되고, 그때는 참된 신행이 될 수 없다.

특히 기도는 영험을 바라고 하는 것만이나, 궁극적으로 기도를 하면 신심에 있어 부처님 가피로 자신의 불성을 깨달을 때까지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신앙은 생활이기에 자신과의 굳은 약속이기에 실천에 옮겨졌을 때 가치를 발현한다. 그런 점에서 이매림씨의 '백일기도'와 이태순씨의 '자등명 범등명'을 공동으로 대상작에 뽑았다. 두 작품 모두 진솔한 신행체험 속에서 많은 불자들에게 신앙적 확신을 심어주는 감동을 절절히 보여준다.

신행수기를 쓸때는 문장을 착실하게 쓰는 행위 그 자체도 기도와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심사기준에서 내용의 감동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수기를 기술하는 그 순간도 수행이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더 좋은 많은 작품을 기대한다.

기도영험 수기보다 이웃에 회향하는 육바라밀 체험담 기대

◇현대불교신문이 공모한 제3회 신행수기 심사장면.



佛紀 2542年 戊寅年

모두가 함께 나누는 밝은 세상을 기원합니다.

<p>주택방앗간</p> <p>대표 박대현</p> <p>▶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118 13/5 TEL : 051-404-2868</p>	<p>금강약국</p> <p>오길준 · 정미영</p> <p>▶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2가 69번지 15/2 TEL : 051-245-7982</p>	<p>백산종합해사</p> <p>대표 백문현</p> <p>▶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가 38-1 TEL : 051-413-9600</p>	<p>한라청과</p> <p>대표 최행자</p> <p>▶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구청앞 TEL : 051-413-3273</p>	<p>불심으로 한마음되어 상담과 치료에 임하겠습니다.</p> <p>美 치과의원</p> <p>원장 박태준</p> <p>▶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61-6번지 TEL : 051-403-9727</p>	<p>삼흥기업사</p> <p>대표 조흥래</p> <p>▶ 부산광역시 북구 덕포동 372-1 TEL : 051-305-6431</p>
<p>불광불교미술원</p> <p>원장 박갑용</p> <p>▶ 경기도 가평군 하천리 418-2 TEL : 0356-84-3952</p>	<p>신선불화연구소 경화/벽화/개점</p> <p>한국일보 법문사 김복규 박영호 선불화연구소 장정호</p> <p>연구소를 이전하여 인사 올립니다 ▶ 박경귀 두손모음</p> <p>서울시 종로구 광판동 61-1 작업실 733-0730 (011)226-0730 자택 733-0731</p>	<p>불원 미술원</p> <p>원장 김진구</p> <p>▶ 서울 강동구 성내2동 136-6 TEL : 02-477-9178</p>	<p>불교포교자료원</p> <p>생활한복, 승복 야외법회용과불 다중용 법요집, 천수경</p> <p>* 통신판매 가능</p> <p>▶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1 TEL : 02-723-4600</p> <p>황톳길</p>	<p>수정아트기획</p> <p>대표 박인숙</p> <p>광섬유 연등·연꽃 불단 장엄</p> <p>▶ 서울 종로구 인사동 37번지 삼우 B/D 502호 TEL : 02-725-5003</p>	